

음악 교육 동향*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음악·미술 교과에 입장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음악·미술 공동대책위원회

○ 기초와 선택의 위계 불명

학교 예술교육은 학습자의 취향이나 흥미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21세기 문화예술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초소양교육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극’ 교과를 선택과목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술교육의 위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교과별 연계교육이 중요한 국가교육과정에서 ‘연극’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교과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예술교과군의 일반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무용, 영화, 사진, 애니메이션, 공예 등 많은 예술 관련 분야도 일반보편적인 성격의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기존의 기초예술교과인 음악, 미술 교과는 ‘공통 교과’로 배치되어야 그 위계가 올라갈 것입니다.

○ 입시위주 과목만 공통과목으로 부활

10학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선택교육과정으로 변환되면서 사라졌으나 2015 개정안에서 ‘공통과목’으로 부활한바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등의 과목 또한 ‘공통과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안처럼 입시위주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부활한다면 이는 명백히 입시위주교육으로의 강화에 불과 할 것입니다.

예술교과군 내 연극 교과의 신설이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초소양 예술교육으로서 음악과 미술을 ‘공통 과목’으로, 그리고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분야를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심화 혹은 진로를 위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 기초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의 구분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연극’을 일반보편적인 성격의 예술과목에 포함시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려는 발상은 민주문화시민 양성의 기초소양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학교 교육에서의 체계적인 기초예술교육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교 예술교육은 체계적인 학문의 연계성을 기초로 합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음악과 미술이 정규교과로 개설된 것은 두 교과가 청각과 시각예술의 대표로서 학습자가 예술적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창의성·인성적 함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소양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학교의 시작과 더불어 개설된 음악과 미술교과는 예술교육의 기초교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시민 양성,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통한 실력 있는 지식인 양성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예술교과의 위상 축소와 입시위주 과목의 비대화

그동안 음악과 미술교과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시수 축소, 2007년 음·미·체 평가기록방식 변경,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술교과군(음악/미술)으로 분류됨으로써 음악·미술교사의 권위는 비참하리만큼 추락하여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려운 지경까지 왔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무관심과 무기력은 가속화되면서 교실은 황폐화되고 교과 위상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연극’과목의 일반선택 교과로의 신설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봅니다. 때문에 그 위상과 위계에 걸맞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입시경쟁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음악, 미술과목의 ‘공통과목’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3대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의 성공을 위해서 나락으로 추락한 창의·인성 예술교육의 질적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술교육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삶의 질을 고양시켜 주고 문화예술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예술교육으로 정상화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술교육 체계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하며 기초소양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파행적 결정이 아닌, 참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